

트럼프, 거듭 퇴짜...카터 방북 불투명

〈前 미국 대통령〉

“대북문제는 현직이 할 일”

북한 측 입장 아직 없어

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8일(현지시간)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측 입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북한 전문가이자 평화학자인 박한식



(78)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날 28일 조지아주의 카터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와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카터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전격 방북해

극적 반전을 끌어냈던 것처럼 생전에 다시 한 번 엄중한 상황을 풀기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전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

해 카터 전 대통령이 신문 기고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

는 의견을 서로 나눴고, 이에 실제 기고한 글과 함께 그의 방북 의사가 북한 측에도 전달된 상태”라며 “북측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 그쪽에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3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기고에서 한반도 내 ‘제2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군사적 공격이나 좀 더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은 위기를 끝낼 즉각적인 길이 되지 못한다”며 평화협상을 위한 대북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미국 정부에 공개 제안했다.

박 교수는 “카터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

통령에게도 두어 차례 방북 의사를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문제는 현직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알아서 하겠다(Leave me alone)’라고 했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식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무게는 더 실릴 수 있겠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꼭 특사 자격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며 “북측의 반응 등 상황을 좀 봐야 한다. 만일 북한 쪽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텐안먼 사태 떠오를까봐...

中, ‘택시운전사’ 상영 금지

인터넷 검색도 차단



영화 ‘택시운전사’ 속 한 장면.

중국 당국이 텐안먼(天安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영화 ‘택시운전사’를 상영 금지한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그 흔적조차 지웠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5일 보도했다.

택시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이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간 서울 택시운전사 고 김사복의 실화를 다룬 영화다. 국내에서 관객 수 1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중국에서도 지난달 개봉 후 문화정보 사이트 두판(豆瓣)에 수만 건의 글이 올라오고 평점도 10점 만점에 9.1을 받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택시운전사가 텐안먼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상황은 급변했다.

텐안먼 사태는 중국 정부가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 100만여 명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공산당의 지배력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은 텐안먼 사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중국 내에서 택시운전사의 상영이 금지된 것은 물론 3일에는 두판에 있는 택시운전사 페

이지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택시운전사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되고 있다. 검색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는 택시운전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검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중국도 아닌 다른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영화 상영이 금지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등 당국의 조치에 울분과 좌절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은 불법 인터넷 경로를 통해 택시운전사 동영상의 공유를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에서는 이달 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민감한 뉴스의 전파를 차단하고 여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조치가 잇따라 네티즌들의 불만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체 게바라 사망 50주년...추모식 찾은 라울 카스트로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이 체 게바라의 사망 50주년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그의 시신이 안장된 쿠바 산타클라라를 찾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게바라 사망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수 천 명의 참배객들이 산타클라라에 있는 그의 묘지를 찾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전쟁하고 싶다” 공화당서도 일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무모한 위협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의 길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밥 코커(65·공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리얼리티 쇼인 ‘셀러브리티

티 어프렌티스’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나라(미국)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산을 쌓은 테네시 주 체타누가 시장 출신인 코커 위원장은 2번의 임기 동안 총실한 공화당원이며서도 과도하게 당파적이지 않은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고종 황제의 명신 배염

배염(裴炎, ?~684)은 강주 출신으로 자는 자룡이다. 당 고종때 재상을 역임한 전문관료다. 무척전의 신임을 받았으나 이경업 반란에 연루되어 684년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그는 10년 이상을 학문에 정진해 춘추좌씨전과 반고의 한서에 능통했다. 과거시험에 합격해 산동성 박주의 식량담당자가 되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해 황문시랑이 되었다. 680년 동문서문학사품, 681년 시중이 되었다. 675년 고종이 아끼던 황태자 이훤이 24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차남 이훤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는 사실 무척전의 언니 한국부인의 소생으로 자신의 처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녀는 소양정범(小陽正範)과 효자전

령으로 승진해 정사를 총괄했다.

684년 취임한 중종은 장인 위현정을 시중으로 임명하려 했다. 배염이 반발하니 “나는 천하를 위현정과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찌해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화를 냈다. 결국 태후와 상의해 황제 폐립을 계획했다. 유이지, 정무정, 장건욱과 함께 군을 이끌고 궁으로 들어와 중종을 폐하여 여릉왕으로 삼았다. 동생 예왕 이단이 취임하니 예종이다. 무승사가 태후에게 무씨 조상들을 왕으로 추봉하고 무씨칠묘(武氏七廟)를 세울 것을 요청하자 배염은 반대했다. “태후께서는 지극히 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사사로워서는 안됩니다.” 태후는 가납치 않았고 소원한 마음이 생겼다.

장군 이세적의 손자 이경업이 반란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무척전에 희생

(孝子傳)을 편찬해 태자에게 주고 자주 편지를 써서 나무라니 태자가 몸돌바를 물리쳤다. 태자는 성색(聲色)을 좋아하고 노예 조도생 등과 친해 난행의 모습을 보였다. 배염이 사건을 조사해 전말이 드러났다. 태자를 폐위해 서인으로 삼았다. 남색을 가까이 하고 무기와 갑옷을 몰래 숨기고 있다는 죄명이었다.

681년 중신 배행검과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행검은 돌궐족의 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돌궐 지도자인 아사나복nem과 아사덕은부는 서로 시기하고 세력을 다투는 사이였다. 아사나복nem은 결국 아사덕은부를 체포해 당에 항복했다. 이로 인해 돌궐의 남은 무리들이 평정되었다. 당초 배행검은 그들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항복을 받아냈다. 배행검의 공을 시기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아사나복nem은 부장 장건욱과 정무공의 압박을 받았고, 또 회홀 등이 북쪽에서 압박하자 공색해져서 항복했을 뿐입니다.” 결국 두 지도자는 낙양에서 참수되었다. 이로 인해 돌궐족의 당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682년 관중 지방의 기근이 심해 곡식이 한말에 300전이 되자 고종은 동도인 낙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683년 고종이 붕어했다. 그가 유조를 받들었는데 새 황제는 국가와 군대의 중대사를 태후 무척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중서

을 일으켰다. 태후가 계책을 묻자 “태후께서 정치를 되돌려주신다면 도벌에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평정될 것입니다”고 답하였다. 태후는 배염이 재상이 된 후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크게 못마땅해 했다. 그를 이경업과 결탁해 모반을 꾸렸다는 죄명으로 체포하였다. 태후에게 간청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권유를 받아 말하기를 “재상이 하옥되었는데 어디에 온전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납언 유명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돌궐 지도자인 아사나복nem과 아사덕은부는 서로 시기하고 세력을 다투는 사이였다. 아사나복nem은 결국 아사덕은부를 체포해 당에 항복했다. 이로 인해 돌궐의 남은 무리들이 평정되었다. 당초 배행검은 그들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항복을 받아냈다. 배행검의 공을 시기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아사나복nem은 부장 장건욱과 정무공의 압박을 받았고, 또 회홀 등이 북쪽에서 압박하자 공색해져서 항복했을 뿐입니다.” 결국 두 지도자는 낙양에서 참수되었다. 이로 인해 돌궐족의 당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684년 12월 낙양에서 참수되었다. 배염이 이경업에게 전달했다는 비밀 문서가 발견되자 이것을 근거로 참수한 것이다. 죽음이 임박하자 형제들을 되돌아보면서 말하였다. “형제들의 관직은 모두 스스로 얻은 것인데 나와 언좌되어 유배당해 숨어서 살게 되었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은가?” 사후 집안을 뒤져보아도 향아리에 1석의 식량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무척전은 거침없이 권력을 질주해 690년 당을 폐하고 주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705년 그녀가 퇴위하고 예종이 황제로 다시 복귀하자 710년 사후에 명예가 회복되고 추증되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동림지역 도시지역
토지 276평 감정가 83,000,000 최저가 58,000,000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근 린 시 설

- ▶남구 봉선동 봉선주유소인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85,000,000 최저가 4,685,000,000
- ▶동구 충장로1가 스포츠웨어매장 지하층-지상3층건물
토지 32평 건물 97평 감정가 1,330,000,000 최저가 1,330,000,000
- ▶서구 농성동 큰사거리 도로변
토지 43평 건물 51평 감정가 261,000,000 최저가 261,000,000

공 장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 ▶북구 용정동 창고 용전마을인근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700평 건물 134평 감정가 3,500,000,000 최저가 2,430,000,000

일 반 물 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청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당리 임야 42000평
- ▶신안군 종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